

한복의 아름다움 '세계로 미래로'

산문박의 山門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씨

전시장에 연등·장독대 등 설치 과거를 통해 현재의 가치 전달 한국美의 상징 한복 '세계인 감탄'

디자이너는 하늘빛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 표현의 색에만 감동해서는 안된다. 하늘의 무한함과 그 위를 자유로이 흘러 다니는 하얀 구름과 이글거리는 태양, 깊은밤에 반짝이는 별빛과 달님의 미소 그리고 저 우주 깊숙한 곳의 고요함까지도 동시에 떠올리면서 디자인에 임해야 한다.

눈으로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이면의 깊이와 관(觀)하기를 불교의 가르침과도 닮아 있는 것이 어찌면 디자이너의 업(業)인지도 모르겠다.

가볍고 투명하지만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환한 밝음으로, 투박한 듯 하면서

이한 색깔을 한복에서 일궈내고 있기 때문이다.

원색보다는 풀바위 틈새에 자란 이끼색이나 미중에 흔들리는 겨울소나무의 푸른색, 고요한 절간을 가득채운 고동색, 수행승들의 고행을 대변하는 회색 등 이색의 색깔에 대한 변화와 고집은 '이영희 색'이라는 이름까지 만들어 냈고, 이같은 토대위에서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한복의 선 '이영희 라인'이 탄생, 고유 디자인으로 인정받기까지 이른다.

"전통은 말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한국적인 전통서 색·디자인 영감 얻어요" '현상에 집착 말고 내면을 보라' 더없는 가르침

도 정감어린 자연의 순수함을 아름다운 선의 미학으로 되살린 한민족의 옷, 한복. 한복디자이너에게 있어 자연을 관하고 그 속에 공존하는 삼라만상의 과거와 현재를 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작업의 과정이다.

한복디자이너 이영희씨(60) 또한 그렇게 자연을 사랑하고 과거의 전통과 오늘,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디자인이라는 방법으로 통합해 낸다.

"지난 것에서 소재를 찾곤 합니다. 과거 없이는 현재의 가치를 찾을 수 없지요. 과거가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씨는 고무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관련 책들을 보며 그 시대의 변화로부터 자연색상과 디자인에 관한 많은 영감을 얻는다.

현대화라는 이름아래 화려한 색상의 한복이 난무하는 요즘 '이영희 한복'이 국내는 물론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한국의 전통을 담고 있는 '자연' '벽화'와 '절(寺)'이 갖고 있는 색깔들에서 유추해내 그 섬세하고 우

직접 느껴야하고, 또다시 지금 현재 재현해내야 합니다"라 말하는 이씨는 자신의 이같은 신념을 지난 7월 파리 픽 샹부르중 오랑제리 전시장에서 여실하게 보여주었다. 예술과 패션의 도시 파리에서 열린 '한복-바람의 옷' 전시회는 궁중의상, 전통결혼의상, 서민복, 승복, 무녀복이라는 5개의 테마로 꾸며져 단순한 한복전시회가 아닌 한국문화의 향기를 전하는 기회가 되었고 이씨에게도 변화와 창조 의 끊임 없는 도전의 현상이 되었다.

"파리에서 한복 전시회를 열기위해 수년동안 파리 패션가에 공을 들이고 이미지 작업을 했습니다. 전시회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지요. 전시장에는 장독대와 공길, 절(寺), 전통결혼의상의 모형을 모두 만들었고, 전시장 마에링의 머리를 손질하는데도 10명의 미용사가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곳곳을 한국의 전통적인 물건들인 장독대, 버선, 노리개, 청사초롱, 연등 등으로 꾸며 최소의 공간에서 최대의 노력으로 한복과 어울린 우리 것을 보여주

려고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씨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한복(Hanbok)'이라는 고유영어스펠링을 세계인의 마음속에 각인시키기도 했다.

식물에서 뽑아낸 실로 짠 흰 모시 블라우스와 자신이 직접 재단한 비단 조끼를 즐겨입는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씨는 1978년 처음으로 한복디자인과 제작에 뛰어들었다. 83년 워싱턴, 85년 오사카, 86년 브뤼셀, 88년 밀라노와 뉴욕, 모스크바에 이어 93년에는 드디어 세계 패션의 메카인 파리에서 전시회를 갖는 등 한복의 아름다움을 세계인에게 전했다. 또 94년에는 한국인으로 처음으로 파리 바르거리 109번지에 부띠끄까지 마련하고 세계패션가에 한복을 패션상품으로 정착시켰다.

서울과 파리를 오가며 일년에 1천5백여점의 한복을 제작, 옛날 옷을 새롭게 발전시켜 현대에 그리고 미래에 접목시키고 있는 이씨는 1년에 한두번은 꼭 통도사 서운암을 찾아 성파스님과 더불어 천연염색을 하며 정신적 충전의 기회를 갖기도 한다.

"절에 들어서면 마치 제 집에 있는 듯 편안함을 느낍니다. 숲과 절의 기와 지붕을 보면 색자들이 공기속을 날고 있는 듯 하고, 제 마음은 어느새 뿌듯해 집니다"라는 그녀는 진자주빛 염색 통속에 손을 넣으며 노력과 환희의 흔적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색깔을 만나고 또 새로운 디자인의 영감을 얻는다.

"우리 것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이영희 한복'이 아닌 한국의 옷 한복을 말이지요. 제가 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다음 세대에서는 한복이 세계 최고의 옷이라는 것을 알리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영희씨의 평생 원력이다.

자신있게 적극적으로 우리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널리 알려 서양인들이 스스로 우리것에 관심을 갖고 우리를 찾아오게 될 때 그때 진정한 세계화가 이뤄지지 않겠냐며 활짝 웃는 그녀의 꿈은 세계사람들 모두에게 한복을 입히는 일이다.

이은자 기자

한마음이면 해탈도 함께 되는지

문 주인공을 찾음은 길종화복의 해결보다 생사와 육도윤회로부터 해탈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스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의 주인공자리가 하나로 같이 한마음이라 하시는데 선문염승 233칙에 천동각선사가 밝힌 주인공자리와 오대산 무척스님의 깨달은 이후의 말씀, '문수는 내 문수고 무척은 내 무척이다' 한 것을 보면 깨달은 주인공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한마음이라 하면 크게 어긋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큰스님께서 이미 깨달아 생사 윤회에서 벗어나셨다면 중생들은 놓아두고라도 한마음의 제자만이라도 이미 해탈이 함께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주인공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옮겨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백민수·광주직할시 두암동)

답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중생에게는 불성이 깃들어 있으니 일체중생이 다 부처'라고 하셨습니다. 잘 아시듯이 중생은 누구나 부처될 성품을 갖추고 있고 그것은 깨닫고 못깨닫고에 관계없는

데라 이겁니다. 그러나 문수는 내 문수고 무척은 내 무척이라 하는 소리지요. 박선생께서 깨닫고 나니 박선생 모습이 그 모습 아닐까요?
근본에서 틀이 아니요 한마음인 고로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요, 공과 색이 다르지 않지만 색이 무너져 공이 된다고 한다면 어찌 색과 공이 틀이 아니라 말을 하겠습니까?
일체중생엔 다 부처될 성품이 있어 근본에서 한마음이지만 그것을 깨닫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맛을 보고 제가 알아야 하는 것이지 그렇다더라 하는 것은 진정으로 아는게 아닙니다. 본래는 다 같은 허공인데 스스로 벽을 쌓아 경계를 단단히 해놓았으니 그 벽을 헐고 본래 허공에 경계가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까?
물론 스승의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려면 어미 닭이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마지막 순간에 껍질을 쪼아주기도 하듯이 스승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은 병아리의 성품이고 닭입니다. 스승이 깨달았고 한마음을 한자리이니 따라서 제자도 다 해탈했어야지 왜 수행을 계속해야 하는

지 상 상 담
길 을 묻 는
이 에 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생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시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미선원 대령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해 줍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경자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598

근본성품인 것입니다.
근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님은 결과로 깨닫게 되는데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금생의 근본 성품이 부처자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요 달리 무엇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천년동안 어둠에 잠겨 있던 등골에 햇빛이 나 밝히니 어둠은 본래 있던 것이 아니라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자신의 본래 성품이 불성임을 깨닫고 보니 부처와 틀이 아니요 그냥 한자리 한마음이라 이겁니다. 네마음 내마음 하지만 그것은 객진변보에 물들어 있을 때이니 내마음 네마음이 없고 그냥 관대무변하여 공이고 한마음이고 이곳 저곳이 없이 한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자리 한 몸입니다. 그걸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한마음이라 해도 좋고 그냥 부처라 해도 되고, 개별적 입장에서 보면 주인공자리라 해도 되고 참나라 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름은 그냥 이름일 뿐이니 뭐라고 불려도 좋습니다. 아버지 하시든지 하느님 하시든지 여래 하시든지 다 좋습니다. (금강경) 말씀에 여래를 명호로 보느냐 색·소리 보느냐 하지 않았던가요? 내가 주인공이라 한 것도 이름인데 요즘 사람들이 자주 밖에서 찾고 바깥부처에 의지하려하니 안으로 들어대라는 뜻에서 주인공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 선사들이 다 안으로 일심을 말하는 깨달음을 아실겁니다.

또 깨달은 자리에서 경계를 대하니 공과 색이 틀이 아니기에 색은 색대로 좋더라, 여여하더라,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나 하시는데 그 말씀은 문자에 걸린 말씀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서원이 대자대비요 일체중생을 다 건지시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는 더이상 수행할 중생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도 맞습니다만.

삼계란 어느 곳입니까
문 삼계가 18계 내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또 중으로 있는지 형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호현·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답 삼계니 18계니 하는게 어디 금을 갖듯이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냥 한마음입니다. 안이다 밖이다 구분이 없고 어찌다 오물이다가 없습니다. 허공을 가리켜 어디가 풍중이고 어디가 서쪽이다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한마음은 그냥 전체입니다. 전체라서 이쪽저쪽이 따로 있을 양고 어찌 오늘,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회경에서 말하는 중중무진의 세계란 이 세계 속에 저 세계가 있고 저 세계 속에 이 세계가 있으니 이 세계 저 세계가 그냥 하나요 전체라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런 저런 용어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혹사라도 수행에 도움이 될까해서 이 그림자 그림 보여주는 것일뿐 그냥 백지 한장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용어에 걸리지 마세요.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長腦(장뇌) 山蔘**

강원도 홍천 임업협동조합 조합원 생산품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 수험생, 운동선수, 병후 몸조리를 하시는 분자님께 최상품 산삼을 최저가격으로 인연을 맺어드렸습니다.

장뇌산삼의 효능

- 산삼과 더불어서 신비한 원력을 주는 것으로 현대과학으로도 명확하게 성분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동의보감의 여러 문헌에 의하면 신장질환, 뇌졸중, 당뇨, 간장질환, 저고혈압, 신경쇠약, 빈혈, 자궁질환, 강정효과, 심혈관기능부전, 소화불량, 중양등에 뚜렷한 효과가 있다고 기술되어있습니다.
- 눈이 맑아지며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 집니다.
- 인체의 저항력을 높여주며 면역기능과 자연치유력을 높여줍니다.

* 특전 : 각종 자연건강 보조식품 및 보약을 염가로 일신해 드립니다.

전 화 주문처 **서울『장뇌산삼』사업부 大物民藥院 서울(02)207-8387**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 를 사용 해 보세요 !

태아가 엄마의 뱃속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권(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는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온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뼈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있다. ()
18. 당뇨와감성선고통받는다. ()

3가지 이상 관련되는 문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 한국 방항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